



즉시 배포용: 2023년 7월 11일

KATHY HOCHUL 주지사

HOCHUL 주지사, 2022년 유급 육아휴가를 사용하는 뉴욕 주민들이 전국 최고 수준을 기록했다고 발표

새로운 데이터에 따르면 유급 육아휴직 프로그램 사용 건수가 2018년 이래 700,000건 이상이며, 2022년은 160,000건 이상

Hochul 주지사가 2021년 뉴욕 유급 육아휴직법 확대에 따라 더욱 많은 가족들이 자녀 및 사랑하는 사람과의 유대 형성

금융 서비스부의 인터랙티브 데이터베이스 확인은 [여기](#)

Kathy Hochul 주지사는 오늘 2022년 자녀와 시간을 보내거나 아픈 가족을 돌보기 위해 뉴욕의 유급 가족 휴가 프로그램을 사용한 근로자가 기록적인 수준에 달했다고 발표했습니다. 금융 서비스부(Department of Financial Services, DFS) 인터랙티브 데이터베이스에서 공개된 데이터에 따르면, 프로그램 시행 최초 시행 후 4년 동안 총 사용자, 유급 산후를 사용한 남성의 수, 휴가 기간 모두 매년 증가했습니다.

Hochul 주지사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저는 뉴욕의 유급 육아휴직 확대법에 서명함으로써 노동자들이 부모, 자녀, 기타 사랑하는 가족과 유대감을 쌓을 시간을 확보하겠다는 뉴욕주의 의지를 다시 한 번 확인했습니다. 이제 근로자들이 응답하고 있습니다. 참여와 사용이 사상 최대 수준을 기록했으며, 특히 아버지의 참여가 그렸습니다. 전국을 선도하는 우리의 유급 육아휴직 프로그램은 뉴욕을 전국에서 가장 근로자 친화적인 주로 만들기 위한 우리의 노력을 보여주며, 저는 계속 의회와 긴밀히 협력하여 가족을 지원하기 위한 정책과 프로그램을 시행할 것입니다."

Adrienne A. Harris 금융 서비스부 청장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Hochul 주지사의 리더십에 따라, 뉴욕은 종합적인 유급 육아휴직 노력을 강화하고 있으며, 이는 모든 노동자들의 경제적 안정 보호를 위해 반드시 필요합니다. 공공 데이터베이스를 활용해 프로그램의 성공적인 운영에 대한 정보를 투명하게 모니터링할 수 있으며, 뉴욕과 전국의 이해관계자들은 유급 육아휴직 프로그램으로부터 귀중한 통찰을 얻을 수 있습니다."

Clarissa M. Rodriguez 근로자 보상 위원회(Workers' Compensation Board)

위원장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뉴욕은 알고 있습니다. 누구도 가족을 돌보는 일과 급여 사이에서 고민해서는 안 됩니다. 수십만 명의 뉴욕주 근로자들은 2018년부터 유급 육아휴직을 사용했으며, 자녀와 가족이 돌봄에서 큰 혜택을 받고 있듯이 노동자 역시 혜택을 체감하고 있습니다. 매년 더 많은 사람들이 혜택을 이용한다는 것이 놀랍습니다."

Roberta Reardon 뉴욕주 노동부(New York State Department of Labor) 커미셔너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는 유급 육아휴직 확대가 성별 임금 격차를 해결하는 한편, 근로자들이 자녀를 비롯한 기타 가족들과 보내는 시간을 확보할 수 있을 것임을 잘 알고 있습니다. 뉴욕 주민들이 전국을 선도하는 이러한 프로그램을 활용하고 있다는 사실은 고무적이며, 더 많은 사람들이 프로그램을 적극 활용하기를 바랍니다. 유급 육아휴가 확대를 지원하여 뉴욕의 가족에 대한 헌신을 보여주신 Hochul 주지사께 감사드립니다."

2016년 전국 근로자의 13%만이 유급 가족 휴가를 사용했습니다. 뉴욕이 800만 명이 넘는 근로자에게 유급 가족 휴가를 제공하는 선도적인 법안을 제정한 이후로, 프로그램 시행 5년 동안 약 717,000 가구가 가족 휴가를 청구했으며 2022년에는 청구 숫자가 163,124건으로 최고치를 기록했습니다.

데이터에 따른 주요 결과는 다음과 같습니다.

- 유급 휴가 신청 건수는 프로그램 시행 이후 매년 증가했으나, 2020년 코로나19 팬데믹의 여파로 조금 주춤한 바 있습니다. 뉴욕의 유급 가족 휴가 활용률(해당 연도 혜택을 사용한 노동자 비율)은 2018년 1.59%, 2019년 1.73%, 2020년 1.74%, 2021년 1.96%, 2022년 2.06%로 매년 지속적으로 증가했습니다.
- 휴가를 이용한 부모의 대부분은 새로 태어난 자녀, 입양 자녀, 위탁 자녀 등을 자택에서 돌보는 데 사용했습니다. 신청 건수는 2018년 83,796건, 2019년 101,802건, 2020년 98,835건, 2021년 113,025건, 2022년 117,851건입니다.
- 더욱 많은 사람들이 매년 산후 휴가를 사용하여 자녀를 돌보거나 유대를 쌓고 있습니다. 남성이 자녀와 유대를 쌓기 위해 신청한 유급 가족 휴가 비율은 매년 증가했습니다. 2018년 30.8 퍼센트(25,768건), 2019년 33.2 퍼센트(33,803건), 2020년 36.4 퍼센트(35,942건), 2021년 38.3 퍼센트(43,254건), 2022년 39.7 퍼센트(46,764건).
- 더욱 많은 사람들이 심각하게 아픈 가족을 돌보고 있습니다. 아픈 가족을 돌보기 위해 유급 휴가를 신청한 뉴욕 주민은 전체 신청의 27.7 퍼센트이며, 이중 가장 많은 것은 아픈 부모를 돌보기 위한 휴가 신청이었습니다.
- 평균 휴가 기간은 매년 증가하여 2018년 5.5주에서 2022년 7.9주가 되었습니다.

또한 보고에 따르면 모든 지역의 뉴욕주 노동자들이 선도적인 휴가 혜택을 누렸습니다. 2022년 지역 별 휴가 신청은 다음과 같습니다.

- 뉴욕시(49,703)
- 롱아일랜드(23,687)
- 미드 허드슨(17,144)
- 웨스턴 뉴욕(14,539)
- 핑거 레이크스(12,242)
- 주도 지역(9,274)
- 센트럴 뉴욕(6,626)
- 서던 티어(4,774)
- 모호크 밸리(4,185)
- 노스 컨트리(2,953)
- 미확인 또는 뉴욕주 외(17,997)

2018년부터 시행 중인 뉴욕의 유급 가족 휴가 프로그램은 근로자에게 새로 태어나거나 입양되거나 위탁된 자녀와 유대감을 가지고 심각한 건강 상태(코로나19의 중증 사례를 포함할 수 있음)가 있는 가족을 돌보거나, 가족 구성원이 해외에 현역으로 배치될 때 사랑하는 사람을 도울 수 있도록 직업을 보호하고 유급 휴가를 제공하는 직원 지불 보험입니다. 대상 근로자는 급여의 **67%**(한도)을 지급 받고 최대 **12**주간 휴직할 수 있습니다.

2021년 Hochul 주지사는 뉴욕 주민이 심각한 질병을 가진 형제를 돌보기 위해 유급 휴가를 낼 수 있도록 하는 혜택을 확대하는 법안에 서명했습니다. 새로운 내용은 2023년 발효됩니다.

직원이나 미성년자 자녀가 코로나19로 인해 예방 격리 또는 자가 격리 명령을 받은 경우에도 유급 가족 휴가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휴가 신청 방법 등 뉴욕주 유급 가족 휴가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PaidFamilyLeave.ny.gov에서 확인해 주십시오.

뉴욕주 유급 가족 휴가 사용에 관한 DFS 인터랙티브 데이터베이스는 [여기](#)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뉴욕주 육아휴직 공익 캠페인

뉴욕주 노동부(Department of Labor, DOL)가 2023 젠더 임금 격차 보고서(Gender Wage Gap Report)의 권고에 따라 주 전역의 육아휴직 공익 캠페인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이번 캠페인은 새롭게 아버지가 되었거나 될 예정인 사람들을 대상으로 육아휴직에 대해 알리고 육아휴직이 가족과 경력, 여성 근로자의 향후 임금에 긍정적인 효과를 가져온다는 것을 강조하여 더욱 많은 남성들이 육아휴직을 이용하도록 독려하기 위한 목적입니다.

자세한 정보는 DOL의 육아휴직 공익 캠페인 영상 [여기](#)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다음 웹 사이트에 더 많은 뉴스가 있습니다: www.governor.ny.gov
뉴욕주 | Executive Chamber | press.office@exec.ny.gov | 518.474.8418